



重傳이희빈 블로그 가나다라행 시

重傳 이희빈

소개글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도 제대로 받아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구를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따돌림만 당했습니다.저의 별명만 해도 50가지는 족히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였지만 사랑이 솟아나지 않습니다.열정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멍에가 나의 가슴을 자꾸만 짓누르고 있습니다.그러나 꿈은 잃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소중한 꿈이 꼭 이루어 지리라고 믿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열정적이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철없던 그 옛날 어렸을 때가 가장 좋았나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렸을 때가 그래도 제일 좋았나 봅니다. 철없던 그 어린 시절이.....!

가나다라 행시를 통하여 세상을 풍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검은 것을 보고도 검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세상은 곧, 죽은 세상입니다.

목차

• 가나다라.....(1) (어버이의 마음)	11
• 가나다라.....(2) (회고(回顧))	13
• 가나다라.....(3) (가슴에 상처)	14
• 가나다라.....(4) (두고 온 고향)	16
• 가나다라.....(5) (열정적인 꿈)	18
• 가나다라.....(6) (월드컵 4 강)	20
• 가나다라.....(7) (자수성가)	22
• 가나다라.....(8) (멋진 인생)	24
• 가나다라.....(9) (응어리)	25
• 가나다라.....(10) (파도)	27
• 가나다라.....(11) (고르지 못한 삶)	29
• 가나다라.....(12) (타인의 잘못)	31
• 가나다라.....(13) (떠돌이 생활)	32
• 가나다라.....(14) (판도라)	34

• 가나다라.....(15) (혼자라는 것이)	36
• 가나다라.....(16) (몸부림)	38
• 가나다라.....(17) (넓은 마음)	39
• 가나다라.....(18) (새것의 의미)	41
• 가나다라.....(19) (풍만한 가슴)	43
• 가나다라.....(20) (찰거머리)	45
• 가나다라.....(21) (자연의 이치)	47
• 가나다라.....(22) (푸대접)	49
• 가나다라.....(23) (골목길에서)	52
• 가나다라.....(24) (회상)	54
• 가나다라.....(25) (일편단심)	56
• 가나다라.....(26) (충실한 삶)	58
• 가나다라.....(27) (홀아비의 심정)	60
• 가나다라.....(28) (구두쇠 노인)	62

• 가나다라.....(29) (불안한 아이)	65
• 가나다라.....(30) (밤중 사람)	67
• 가나다라.....(31) (탄탄대로)	69
• 가나다라.....(32) (혼돈)	71
• 가나다라.....(33) (시집살이)	73
• 가나다라.....(34) (국제 결혼)	75
• 가나다라.....(35) (세월을 붙들고)	77
• 가나다라.....(36) (장애인 된 여인)	79
• 가나다라.....(37) (삼천지교)	81
• 가나다라.....(38) (고냥(姑娘))	83
• 가나다라...(39) (박직(撲直)한 삶)	85
• 가나다라.....(40) (망부석)	87
• 가나다라.....(41) (소중한 안식처)	89
• 가나다라.....(42) (올바른 가치관)	91

• 가나다라.....(43) (부정과 비리)	94
• 가나다라..(44) (어느 여인의 하소연)	96
• 가나다라.....(45) (불효자는 읍니다)	98
• 가나다라...(46) (허공을 맴도는 것)	99
• 가나다라....(47) (자연과 인간의 조화)	101
• 가나다라.....(48) (봉사는 아름다운 것)	103
• 가나다라..(49) (가슴 저미는 노래)	105
• 가나다라.....(50) (꿈을 키우는 사람)	107
• 가나다라.....(51) (마도로스)	109
• 가나다라.....(52) (부모의 마음)	111
• 가나다라.....(53)(서울 간 님)	113
• 가나다라...(54)(거꾸로 가는 인생열차)	115
• 가나다라....(55) (network-marketing회사의 전략)	117
• 가나다라.....(56)(절실한 꿈을 향해)	119

• 가나다라.....(57)(굳은 맹서)	122
• 가나다라.....(58) (성공을 위하여)	124
• 가나다라.....(59)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하여)	125
• 가나다라.....(60) (진실한 삶)	127
• 가나다라.....(61) (조심 조심)	129
• 가나다라.....(62) (다듬이 질을 하시던 어머니)	130
• 가나다라.....(63) (이제는 더 이상 생각 말아야지)	132
• 가나다라.....(64) (고부갈등)	134
• 가나다라.....(65)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	136
• 가나다라.....(66) (논개)	138
• 가나다라.....(67) (무언의 약속)	140
• 가나다라.....(68) (그것이 곧 행복이 아닐까요)	142
• 가나다라.....(69) (어느 가을에 로맨스)	143
• 가나다라.....(70) (크리스마스)	145

• 가나다라.....(71) (절약 정신)	148
• 가나다라.....(72) (면장택 따님에게 프로포즈)	150
• 가나다라.....(73)(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152
• 가나다라.....(74)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요)	153
• 가나다라.....(75) (대갯집 맘며느리는 아무나 하나)	155
• 가나다라.....(76)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157
• 가나다라.....(77) (딱 맞게 요리를 잘하지요)	159
• 가나다라.....(78) (간호사의 기도)	161
• 가나다라.....(79) (소박한 시골의 옛 풍경)	163
• 가나다라...(80) (그 시절은 모두에게 비극이었습니다)	165
• 가나다라.....(81) (정교한 거미집)	167
• 가나다라.....(82) (너무도 예쁘구나)	169
• 가나다라.....(83)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조화)	171
• 가나다라.....(84) (인생의 드라마)	173

• 가나다라.....(85) (처녀 총각 시절)	176
• 가나다라.....(86) (그 때 실컷 짚어라)	178
• 가나다라.....(87) (걱정거리는 늘 있게 마련)	180
• 가나다라.....(88) (물지계를 지던 그 누이)	182
• 가나다라.....(89)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184
• 가나다라.....(90) (어떤 재앙이 내릴지 모를 지구)	185
• 가나다라.....(91) (거적문)	187
• 가나다라.....(92) (애간장을 녹이는 추억속에 사랑)	189
• 가나다라.....(93) (생기가 넘치던 그녀)	191
• 가나다라.....(94) (밤에 이루어 지는 역사)	192
• 가나다라.....(95) (불타던 그 사랑아)	194
• 가나다라.....(96) (붉게 타는 노을)	196
• 가나다라.....(97) (탄탄한 인간관계)	198
• 가나다라.....(98) (맛있는 간식거리)	200

• 가나다라.....(99) (늘어나는 외국인들)	203
• 가나다라.....(100) (장수시대(長壽時代))	205



<http://cafe.daum.net/HeavenlyCity/3cVW/117>

가도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을

나도 가기가 힘든데

다른 사람이라고 힘들지 않을까?

라일락 꽃 향기를

마음속에 그리며....

바라옵건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픔과 고통을 주지 마옵소서!

자신을 태워서 주위를 밝히는 촛불처럼

차라리 고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주소서..!

~~카~~네이션 꽃을 가슴에 단 어버이의 마음으로

~~타~~고 또 타는 한이 있더라도 저의 가슴을 타게 하소서!

~~피~~뿌리 처럼 희여진 어버이의 머리를 보며

~~하~~나님께 고하노니...! " 부디 만수무강 하옵소서...!"

가시려거든 얼른 가세요...!

나루터 언덕에서 너를 보내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속이 상해서

라이터 불에 담뱃불을 붙인다!

마음속에 남아 있는

바싹 말라버린 눈물도 함께 태운다.

사랑했던 그 여인을 그렇게 돌려 보내고

아름다웠던 과거의 달콤한 추억들과

자신의 삶에 대하여 정리를 해 본다!

차가운 말 한 마디가 이별을 고하고

카드놀이엔 정신이 팔려

타성에 젖어 있다가는

파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성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탓이라는 것을,,,,,,!



<http://anmyondoview.tistory.com/19> [안면도관광정보](#)

가다가 백사장 위에 발길을 멈추고 서서

나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 본다!

다정하고 착하디 착하고

리인강 물처럼 그렇게 넓은 그녀가

마음이 그렇게 바뀔줄은 꿈에도 몰랐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모습처럼

사정없이 떠나버렸다!

파 오는 이 가슴의 상처를

자숙하며 쓸어 내린다.

차라리 꿈이라면 좋았을 것을

카네기의 인간 관계 지도론 책을 읽었더라면

타는 복장을 치지는 않았을 텐데...!

피도에 밀려오는 저 모래알들도

하루에도 수 없이 밀려 왔다 밀려 가는데 , "지워야지!! 잊어야지!!" ...!



<http://cafe.daum.net/lovesteelhouse/JagR/2>

가고파도 갈 수 없는

나의 고향은

다른 곳도 아닌 이 나라의 휴전선 이북이래요!

라디오 소리도 넘어갈 수 없는 곳....!

마음속으로 만 그리워하고 꿈속에서나 가보는 고향을

바로 지척의 저 고향을 , 언제나 가려나...?

사랑하는 부모형제를 그 언제나 만나려나...?

아름다운 을밀대와 모란봉은 그 언제나 가 보려나...?

자리를 깔고 누워도 잠이 오질 않아서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밤바람만 외로운 가슴속으로 파고 드는구나..!

키아~! 하고, 소주를 한 잔 들이키니

타는 가슴이 조금은 위로가 되네...!

피뿌리처럼 희어졌을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라서

하느님께 두손 모아 비옵나이다..! 남 북 통 일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media_view&query1=k18j019801p4jpg&n=b18j3028a

가시가 돋은 장미꽃을

나는 좋아한다..!

다른 꽃들에 비해도

리일락꽃에 비교해 보아도 역시

마음에 드는 것은 정열적이기 때문이다!

바라고 원하는 나의 간절한 꿈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같이 이루어 가기 때문이다.!

아직도 고정관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차거운 바람이 불어올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카리스마의 아름다움인들 건딜 수 없겠지요?

타락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지요!

파란 출기에 가시가 돌아 있는 것도 그 속에는

하나의 빨간 장미꽃을 피우기 위함이라고.....!



http://ko.wikipedia.org/wiki/%EA%B7%B8%EB%A6%BC:Jules_rimet.jpg

가슴 속이 이글거렸던 월드컵의 열기가

나의 가슴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월드컵 이야기만 하면

라- 콤파르시타 경음악을 듣는 것보다 더욱 열정적이고

마술에 걸린 신들린 사람처럼

바로 그런 기분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사람들은 16 강만 하여도 성공이라고 했지만

아 ~ 대한민국이 4 강 이라니.....!



<http://www.sisul.or.kr/sub04/index.jsp>

자랑스런 태극전사와

차도를 가득 메운 수 많은 응원단들.....!

카페트를 팔던 사람이든

타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동포이든

파를 다듬어 팔던 파 장사 아주머니에 이르기까지

하나가 되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기로

나는 마음을 먹었다..!

다짐에 다짐을 했다.

라인 강변에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굳게 먹고 또다시 일어서리라고

바로 그렇게 다짐을 했다....!!

사람들이 그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가와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리라.....!!!

자수성가를 꼭 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차후에 수 많은 사람들 앞에

카-퍼레이드를 벌리며

타인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파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높이 번쩍 들며 웃어 보이겠노라고.....!!!!

제목 : 라인 강

출처 :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Copyright 1994-2004 Encyclopaedia Britannica

설명 : 라인 강은 스위스 중부 지방에서 발원하여 독일과 네덜란드를 가로질러 북해로 유입하는

중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다

관련항목 : [샤프하우젠](#) [라인 폭포](#) [라인 강](#)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험난한

나의 인생 길이 이렇게 어려운가?

다른 길을 찾아 보아도 찾을 수가 없네..!

리면에 끼니를 걱정하는 소년 소녀 가장도 많은데

마음을 고쳐 먹고 충실히 살아야지.....!

바른 생각과 올바른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차곡차곡 쌓여진 선한 나의 일들이

카리스마처럼 이 세상을 바꾸리라.....!

타에 모범이 되어서 누가 보아도 내 인생이

파도처럼 굴곡이 많았지만

허리케인/허리케인은 지구상에서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보여 주리라.....!

기슴속에 응어리가 되어버린

나의 이 말뚫할 사연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도 없고

라이닝이 다 닳은 자동차를 끌고 비탈길을 내려오는 운전사의



<http://ko.wikipedia.org/wiki/%EA%B7%B8%EB%A6%BC:Karakorum-carretera-d08.jpg>

마음처럼 오금이 저리구나..!

바로 옆이 수 천길 낭떠러지인데....

사랑하는 내 식구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참아야 할텐데...!

자꾸만 밀려오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차라리 꿈이라면 좋았을 것을.....!

카세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처럼

타들어가는 나의 이 고충을 나 홀로 고민하다가

파김치가 다 되어 버렸네.

하느님 ! 이 불쌍한 양을 굽어 살피소서..!

가정에서 충실한 사람이

나가서도 큰일을 하는 법이랴오..!

다른 생각일랑 하지말고

라이타 불 이나 좀 빌려주쇼....?

마음속에 속상한 일도 많겠지만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이 하루 길을 가다 보면

아름답고 재미있는 일보다는

자질구레하고 짜증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지요..!

차라리 내 탓이요, 하고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 꽃이라도 달아 드리세요..!

타이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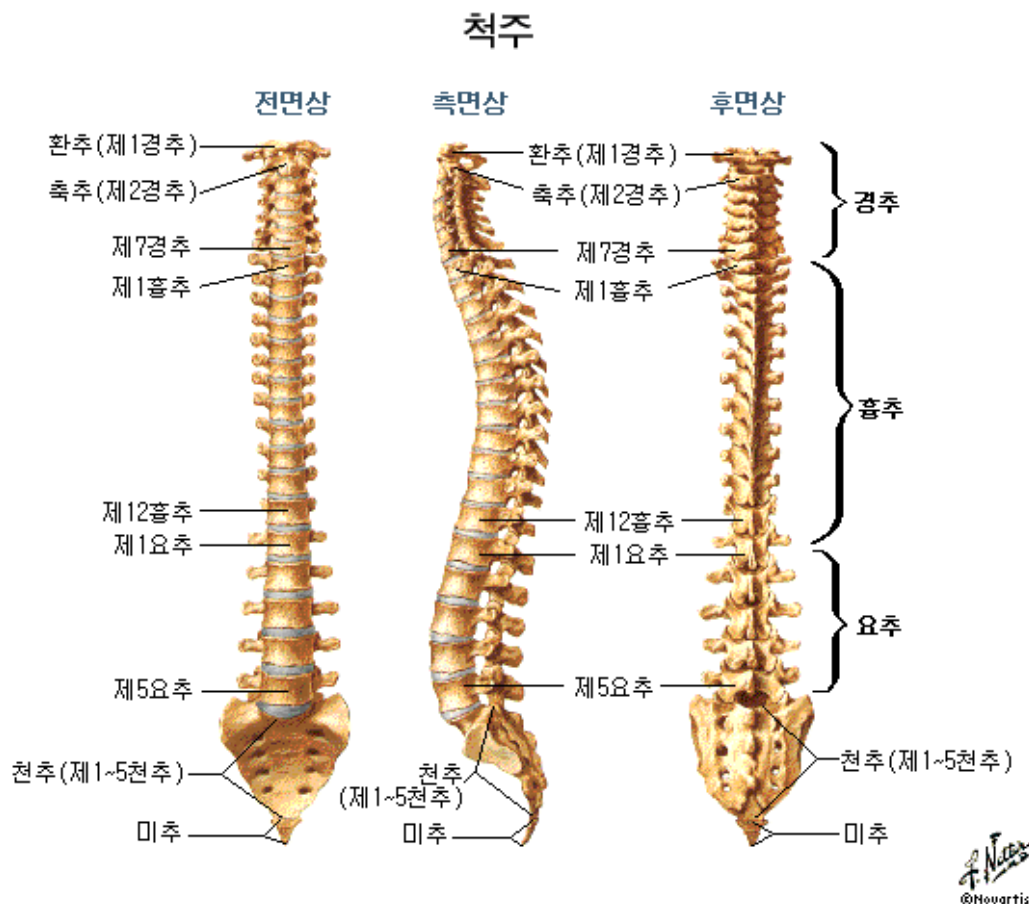
파도는 곧 잔잔해질 것어요..!



<http://af103.blog.segye.com/1032?srchid=BR1http%3A%2F%2Faf103.blog.segye.com%2F1032>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성공하시길 바라겠소..!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고 있는
나는 척추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m=media_view&query1=ohumano023a4gif&n=b18a0925b

제목 : 척주

출처 : Novartis. Electronic use with permission from the Interactive Atlas of Human Anatomy, illustrated by Frank H. Netter, M.D. All rights reserved.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게 잘 살아 가고 있는데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실 정도의 여유는 없어도
미음이라도 편해야 할 텐데.....!
바지랑대 줄에 빨래를 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사람들의 삶이 왜? 이렇게 고르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만 더하고 괴롭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차~~갑고 냉정하게 마음을 먹어야 할 텐데...!

~~카~~네기 연구소에 의뢰하여

~~타~~는 가슴을 어찌해야 이 미풍진 세상의

~~피~~도를 헤쳐 갈 수 있는지?

~~하~~소연을 해 볼 생각이오....!

가시려거든 얼른 가시라고 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 애원하듯 말했다.....!

다시는 가시라고 등을 떠밀지 않을테니

라면을 끓여 먹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겠오.....!

바보같이 당신의 마음도 모르고.....

사나이의 순수함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는 나의 가슴에

자신의 얼굴을 묻고 흐느껴 울었다.....!

차거운 강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언젠가

카네기 연구소에서 배웠던 생각이 떠올랐다.....!

타인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 해주면

파국으로 치달을 일도 말끔히 해결된다 . 고,

하지 않았던가 ? 모르는 척 그녀를 꼭 끌어 안아주었다.....!



닥나무

http://100.naver.com/100.nhn?type=image&media_id=79373&docid=42278&dir_id=0602070123

각성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낙인찍힌 사람이

닥나무에 목을 매고 죽으려 할-

락 말락 할 때

막 시집을 온 새댁이 울면서 뛰어나와 말렸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삭연하게 홀로 외로이 떠돌이 생활을 하더니.....

악한 마음을 먹고 죽으려 하다니..!

작은 것부터 이루려고 하시오!

착하게 살아가시오! 그렇게,

꺅! 하고 죽어버리면

탁상 공론이 되어버리지 않겠소...?

팍삭 늪도록 고생하시며 자식의 성공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생각하시오...!

간다더니...! 왜? 돌아왔오?

난, 간다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다오...!

단순한 사람이라오...!

란초의 즐기처럼 가지가 없이

만들어진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오!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다면? 오산이오...!

산처럼 높이 쌓인

안타까운 이 심정을 그대가 알 리가 없고, 날마다

잔소리를 꿰여 붙는다고

찬밥 신세를 만들어 버린 그대가

칸칸이 채워 놓은 이 무정 탑을

탄식하며 나 홀로 쓸쓸히 지낼지라도

판도라 같은 당신을 나는 원하지 않소!

한 많은 내 인생을 그 누가 알아 주겠냐마는 원망은 하지 않겠오!



<http://www.cyworld.com/runto18/402197>

가로등도 졸고 있는 비 오는 골목길에

나 홀로 외로이 서서

다 망가진 우산을 받쳐들고

리이터를 꺼내 담배 불을 붙인다!

마술에 걸린, 아니 체면에 걸린

바보처럼 그렇게 홀로 서서

사연이 많은 사람처럼 생각에 잠긴다!

아까운 내 청춘은 다 흘러가는데

자수성가를 언제 하려나???

차라리 너와 내가 만나지 않았다면

카세트 테이프의 노랫말처럼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현실이 될 줄은.....!

파도와 같은 너와 나의 인생길이

하도 기막혀서 이렇게 비를 맞고 나 홀로 서 있네...!

거치른 세상 파도를 헤쳐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 잠시 앉아 있는데

더러운 강아지가 흥분을 하여 달려들어

러브신을 보이고 있네!

머물러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버둥거리며 힘들어 하는 모습이 마치

서둘러 빨리 일을 끝내라는 눈치였다!

어두운 곳도 아닌 환한 대낮에도

저토록 자신의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짐승들을 보면서

커다란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터질 듯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퍼져가는 나의 이 성공을 위한 열정을

허무하게 만들지 않으리라! 꼭 성공하리라.....!!!



<http://www.sanjunghosu.com/frame1.htm>

고생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성공을 바란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겠지요.....!

로맨스 같은 추억에 빠진 사랑이라면

모두 집어치우시오....!

보람에 찬 일과 , 그리고, 희망에 찬 일로

소극적인 생각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오직 자신이 원하는 꿈을 향해

조금씩 앞으로 전진한다면

초조하고 힘들지 않을 것이오..!

코메디 같은 연극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토약(吐藥)을 먹은 사람처럼, 금방

포기하고, 실의에 빠지고 말 것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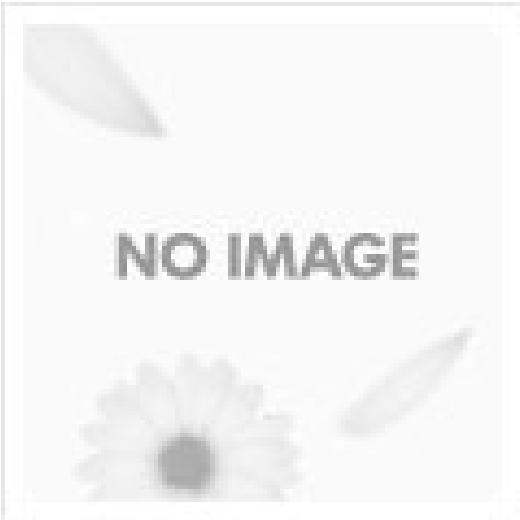
호수에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오..!

견 너야 할 인생길이 너무나도 많은데

넌 어찌하여 태평하게 누워만 있냐?

든져 버리라고!! 그 옛날의 어두웠던 과거를!!

런닝 머신을 타고 미래를 가볼 수는 없지만



[http://shopping.daum.net/product/searchresult.daum?
q=%B7%B1%B4%D7%B8%D3%BD%C5&srchhow=Cexpo&docid=D22567431](http://shopping.daum.net/product/searchresult.daum?q=%B7%B1%B4%D7%B8%D3%BD%C5&srchhow=Cexpo&docid=D22567431)

먼 미래에 대하여 학자들이 이야기 하기를

번창하는 일을 찾아 보라고..!

선점하는 것이 그리고 , 노력하는 것이

연제나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전에도 없었고 ,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천천히 그리고 , 서서히 다가오고 있으니

컨닝할 생각을 하지 말고 , 고정관념을 버리고

턴-하여 돌아가면 진실을 알 수 있으며

핀뜻 떠오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

헌 것에 너무 치중하다보면 새 것의 의미를 모르는 법이오..!

거리에 자식이라고

너무 그렇게 욕하지 마시오!

더러운 인생이라고 흉을 보지도 마세요!

러브 스토리를 작성했던 순수한 사람이라오!

머물러 있는 동안

버려진 인생이라고

서러움을 너무 받으면

어찌 이 세상을 살아가란 말이요..?

저토록 땅을 치며

처절하게 절규하는

커다란 눈을 가진 그리고,

터질듯이 풍만한 가슴을 지닌



<http://hunting.krdaum.info/158?srchid=BR1http%3A%2F%2Fhunting.krdaum.info%2F158>

피런 눈빛의 이 사람을... 그렇게...

허무하고 쓸쓸하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

갈기 갈기 찢겨진 이 서러움을

날더러 어찌하란 말이오.?

달라는 것을 다 주었는데

랄라리(날라리의 음운 법칙으로 씀) 같은

말로서 나를 괴롭히니

발길이 돌아 설 수가 있을까요.?

살아갈 날이 아직도 많은데

알아서 하시오...!

잘살아보려고 나 나름대로

찰거머리 같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칼침 맞은 느낌이요...!

탈없이 수수하게 살고 싶었는데

팔 팔 끓는 당신의 그 성격 때문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 왔오...!

가을 바람이 솔솔 부는 길 언덕에서

나이가 많은 노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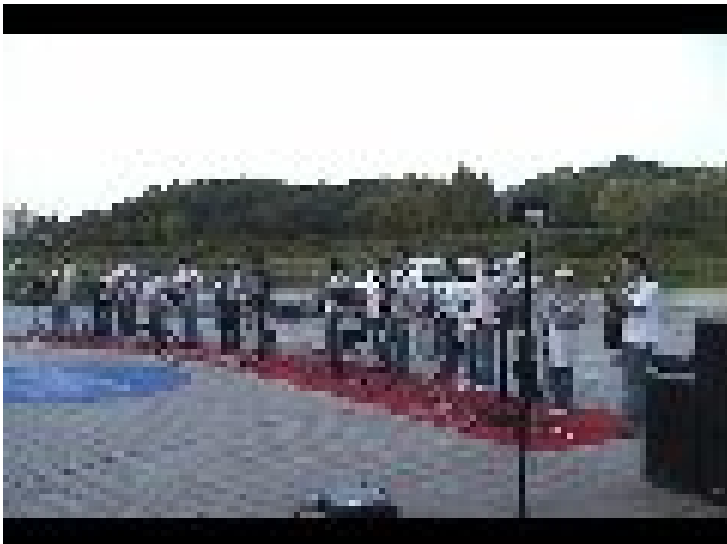
다리를 절룩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걸어 가다가 서서

라이타를 꺼내 담배불을 붙인다....!

마른 얼굴에 그어진 주름살과 물끄러미

바라보는 눈길은

사랑을 잃은 외기러기처럼



http://tpot.daum.net/clip/ClipView.do?cateid=0&lu=v_searchclip&clipid=10173130&page=1&searchType=0&svcid=&svctype=&q=%EC%99%B8%EA%B8%B0%EB%9F%A

아픈 사연이 가득 담긴 노인 같다....!

자연의 이치를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차거운 겨울이 닦쳐 온다는 것을

카네기 연구소에서도 배우지 않았던가?

타인의 아픈 사연을

파헤치듯 들추지 말고

하늘과 자연의 이치를 순리대로 따라 사시요.....!

구름도 쉬어 가는 산마을 어귀에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두루마기를 곱게 차려입은 저 나그네가

루각에 홀로 앉아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부서진 샷갓을 쓰고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00039&kind=menu_code&keys=4

수심에 찬 얼굴로

우리 마을을 내려다 보고 있네..!

주막집 아주머니한테

추근 추근 대던 것이 못내 아쉬워 아랫도리에서

쿠테타가 일어난 모양일까..?

투덜 투덜거리는 모습을 보니

푸대접을 당한 것이 아무래도

후 서방인것 같아 보이네....!

골목길에 아이들이 우르르

날러 나왔다..!

돌맹이를 갖고 공기 놀이를 하는 여자 아이들!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

몰래 숨어서 술래잡기를 하며 노는 아이들!

볼을 차며 신나게 뛰어 노는 남자 아이들...!

솔~소오을 불어오는 바람에 하느적 거리며 나는 고추 잠자리를 보니

올해에도 변함없이 가을이 왔음을 느낀다...!

줄업을 앞둔 유치원생 어린아이가

출랑대며 옆에 다가와 앉는다...!

쿨라를 한 모금 마시고 나니, 갑자기 인도의 작가

툴스토이가 떠오른다...!

폴라 로이드 사진기로

홀로 앉아 있는 여자 아이의 모습을 가을 풍경에 담아 찍어 주었다!

고향에 찾아가도 젊은 사람은 하나 없고

노인들만 남아 있네...!

도로변에 동백꽃 나무도

로멘틱한 옛 모습은 찾을 수가 없네..!

모두들 고향을 떠나고 있는데

보리밭에 뚝배기는 왜 저리도 슬피 우나..!

소나무의 푸른색은 변함이 없는데

오로지 사람만이 변하는것 같네..!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옛날 고향을 그리면

초가지붕 위에 열린 박을 따 달래다 거절당해

코흘리게 어린 시절에

토라져서 울던 모습 하며,

포 데기에 엄마 등에 얹혀서

호 룡불 밑에 쭈그리고 앉아 바느질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네..!

기/ 다리다가 지쳐버린 나를

나/ 가 원데 울리고 있냐...?

디/ 딜방아를 밟으면서도

리/ 라꽃을 향기를 그리며

미/ 움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고 애를 썼다...!

비/ 가 내리는 밤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시/ 간이 얼마를 흘러 갔어도

이/ 사람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알거나 하는지..?

지/ 나간 세월을 후회는 하지 않지만

차/ 사한 인간은 되지 말아 주시오..!

키 크고 싱겁지 않은 사람 없다고

티 없이 맑고 고은 내 가슴에

피멍이 드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히스테리에 걸리지 않게 해 주시오..!

고생을 해 보지도 않고

노력도 해 보지도 않고 성공을 바란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로멘스의 향연을 느끼려면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보람찬 내일을 위해

소신(燒身)껏 일을 하시오.!

오늘의 이 고생이

조금은 힘들겠지만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코 방귀 뀌지 마시고

토 심스럽게 생각하지 마시오..!

포 도주의 참맛을 느끼려면 일백 년이 걸리듯

호 락호락한 일은 없는 줄로 알고 있오!

구 만리 머나먼 길을

누구를 찾아왔나?

두루마기 곱게 차려 입은 나그네가

루각에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네!

무슨 사연이 있길래

부채를 한손에 들고

수심가를 한 대목 읊어 댄다!

우리네 인생이 한번 가면 그만인데~ ~♪ ♪

주막집에 주모를 불러 술 한 잔을 기우리네!

추가로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아랫도리에서

쿠테타가 일어난 모양일세?

투덜거리는 그 나그네의 말속에는

푸념하듯 주모에게 애원을 하며

후처(後妻)로 같이 살자는 눈치였다!

고집이 세고 구두쇠라고 소문이 난

노인이 살고 있었다!

도대체 이 노인이 얼마나 구두쇠 이길래?

로스구이 통닭도 뼈다귀까지

모두 다 먹을 정도 였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소용없는 것은 버릴텐데.....?

오로지 그 노인은

조그만 것도 절대로 버리질 않는다!

초승달같은 눈섭에

코 끝에는 빨간점이 하나 있고

토라지길 잘 하는 그 노인은

포용력이 전혀 없다!

호랑이같은 그 노인이 그래도 오래 오래 사시길 바란다!

골 내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놀러 가서도 골만 낸다!

돌 땀을 들어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에게

몰래 던진다거나

볼펜으로 남의 책에다 낙서를 한다!

솔직히 말해 이런 아이는 정서적으로

울곧지 못한 집안에서 마음을

줄이며 자랐기 때문이다!

출썩거리며 행동하고

콜라를 마실때에도 질질거리며 흘린다.

톨스토이에게 물어보아도

폴리스(Police : 경찰)에게 일러도 소용이 없다!

홀로 외롭게 자란 탓이니까 (?)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 가시오!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담을 높이 쌓으면 이웃의 어려움을 모르지요!

람상(濫想)은 도상신(盜想神)이요!

맘속에 항상 자기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밤중 사람일 것이요!

삼일 천하와 같은 헛된 약속은 하지 마시오!

암만 처녀가 아이를 갖고 싶어도

잠을 남자와 같이 자야 아이가 생기듯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오!

캠 캄한 밤에 이루어진 비밀스런 일도

탐 정 같은 하느님께서서는 모두 알고 계시지요!

팜 플렛(Pamphlet 도이치 어)을 보고도 이해 하지 못하시겠오?

함 물(陷沒)하지 않기를 두손모아 빌겠오!

간 단하고 쉬운일이라고 할지라도

난 관은 있는 법이지요!

단 순하다고 얼렁뚱땅 해치우려 하지 마시오!

란 도셀을 메고 다니는 초등학교생이라도

란도셀(ransel : 네델란드 어 : 초등학교생이 학용품이나 책을 넣어 다니는 가방)

만 용(蠻勇)을 부리지는 않을 것이오!

반 드시 그 일에 대한 댓가를 지불해야 성공이

산 출되듯이

안 일하게 매사를 처리하다 보면

잔 소리 아니면 꾸중을 들을 것이오!

찬란한 젊은 꿈을 피우기 위해서는

칸칸이 빈틈없이 지식을 채워서

탄탄 대로를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오!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고.....

한번 계획한 일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이루길 바라오!

공(公)과 사(私)를 가려서 행동하시오!

농담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시오!

동네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 주시오!

통아(聾兒)는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도 못한다오!

몽유병(夢遊病) 환자처럼 착각속에 살지 마시오!

봉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시오!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대지요?

옹졸한 생각일랑 모두 강물에 집어 던지시오!

종로 제기도 발이 맞아야 차듯

총지휘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으시오!

공 나물 시루에도 물을 고르게 주면

통 통하고 일정하게 자라는 법이지요!

풍 당 풍당 돌을 던지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홍 의 인간의 그 열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오!

기/타줄을 튕기며 창가에 앉아 있는

니/모습을 바라보니, 내 어릴적

디/딜방아를 밟던 할머니 모습이 떠 오른다!

리/라꽃 향기보다 더 곱고 , 입가에 머금은

미/소 또한 내 머리속에 남아 있네!

비/가 내리는 날에도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려고

이/리뛰고 저리 뛰던 어머니의 구슬픈 시련도

지/곳지곳한 시집살이 언제나 끝이 날까?

차/마 자락을 잡아당기며 칭얼대는 어린아이를

키/ 질 하면서 달래기도 했지요!

티/ 없이 맑고 초롱초롱한 어린 너 때문에

피/ 눈물을 삼키면서 참고 또 참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히/ 히히 하고 항상 웃는 바로 나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거만하다고 소문이 나 있는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더운 여름에도 밖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가

러시아 여행을 친구들과 같이 가게 되었다.

머나먼 외국에까지 나와서

버릇없이 거만을 떨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서른 살을 훨씬 넘긴 그에게

어느 누가 중매를 설려고도 하지 않았기에

저녁에 슬그머니 혼자 나가 선술집에 들러

처량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데

커다란 키에 러시아 여성이 옆에 다가와

터놓고 이야길 해보니

퍼런 눈을 갖고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착한 것 같아

허전한 그의 마음을 채워 주었기에 결혼하기로 하였답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아 매려고 세월을 붙들고

나무밑으로 갔더니

다른 사람도 그 세월을 붙들고

라일론 끈으로 나무에 묶으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주 보고 두 사람은 서로 말하기를

바로 이 세월을 어떻게 하면

사로잡을 수가 있느냐고 하였다!

아무리 그 세월을 못가게 하려 해도

자신의 이마에 새겨진 주름살이 하나 둘

차곡 차곡 쌓여 늘어만 가는데

카노푸스(canopus 라틴어: 노인성) 별을 바라보며 애원하고 있어도

타계할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누구나 다

파뿌리 같은 머리를 하고 끝내는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오!

가냇른 몸메에 목소리 마저

나긋나긋하던 그녀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절뚝 거리며

라면을 가게에서 사 가지고 나왔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미어졌다!

바라웁건대

사랑하는 저 여인을 누가 좀 도와 줄 수 없을까?

아름다운 저 여인을...!

자신의 괴로움을 남에게 말하지 않고 남의

차가운 시선을 애써 미소로 답하려는 그 사람!

카 나리아가 저 여인 보다 아름다우랴....?

타 성에 젖어 어려움을 잊고 살아가는

파 렴치한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불쌍한데....!

하 느님께서 은총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담당하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 하십시오!

람원(濫願)은 지나친 욕심을 낳게 한답니다!

맘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십시오!

밤낮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삼천지교(三遷之敎)라는 맹자의 모친 말씀이 있지요!

암울(暗鬱)한 생각일랑 빨리 잊어 버리십시오!

잠방이에 대님 치듯 하는 일일랑 하지 마십시오!

참고 견디다 보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리요!

캄 캄한 밤중 같은 사람도 항상 자신이

탐 구하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면

팜 플렛(Pamphlet : 도이치 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오!

함 박꽃처럼 항상 환하게 웃으며 살아 가십시오!

구름이 뭉게뭉게 하늘 위를 떠 가고 있고

누렇게 익은 곡식을

두루 두루 살펴보니 농부들의 땀방울이 얼마나 될까?

루각에 앉아 그들의 노고를 생각하니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조차 없네!

부지런히 일을 한 결과를 거두는 즐거움도

수고를 하지 않고는 맛 볼 수 없으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도, 다 그렇게

주어진 인생이거늘.....!

추풍낙옆처럼 때가 되면 우수수 떨어지는 인생이거늘.....!

쿠우냥(姑娘 :중국어)이 언제까지 젊음을 유지한다고

투가 나쁘게 노인들을 대하지 마시오!

푸근하게 노인들을 극진히 공경하면 나라에서

후한 상을 내릴 것이요!

각 박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낙 심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 가십시오!

닥 치는 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락 스 냄새가 싫으면 청소를 못하지요!

막 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 직(撲直)하게 살아가다 보면 꼭 성공을 할 것이요!

삭 월 셋방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한이 있어도

악 한 행동일랑 절대로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목표를

작 삼삼일로 만들지 마십시오!

착 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 하면

카 테일 맛 같은 달콤한 꿈은 꼭 이루어 질 것이요!

탁 월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십시오!

팍 삭 늙으신 부모님께서 당신이 꼭 성공하길

학 수 고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강산이 수 없이 변하여도

낭자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구려!

당당한 미모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랑주골 처녀를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어버렸다오!

방글 방글 웃는 얼굴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네!

앙종맞고 길게 늘어뜨린 치렁치렁한 머리는

장정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지요!

창파(滄波)에 배를 띄우고 멀리 떠난다 해도

강 강 춤을 추는 미모의 프랑스 여인을 만나다 해도

탕 탕 평평(蕩蕩平平)한 나의 마음은

팡 파아르(fanfare : 프랑스어)를 울려줄 만큼

항 상 그녀만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가정은 우리에게 있어 소중한 보금자리 이며

나라는 국민에게 있어 위대한 안식처 라고 생각한다!

다정하게 속삭이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라일락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정원을 거닐다가

마당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평온함을 느낀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 세상 살아가기를

아등 바둥하며 어둠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면서

자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차근 차근 알려주고 또 가르쳐야 할 것은

카 네기의 올바른 인간관계를 꼭!!! 가르치시오!

타인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자세와 말로서

파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가정의 소중함을

하루에도 수 없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시오!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해야 국가가 발전을 하듯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라디오 방송을 한다면 청취율이 높아지지요!

마른 나무에 불이 잘 붙는 것처럼

바른 생활을 하면 행복이 넘친대요!

샤라지는 미풍양속이 너무 너무

아쉽기만 한 요즈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차근 차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카인의 후예(後裔)처럼 저주받은 무리가 되지 않도록

타이르고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드시오!

파국을 초래하여 지울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

가정에는 가문을 위한 가훈이 있듯이

나라에는 국가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헌법이 있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TV 뉴-스 혹은

라디오 뉴-스를 듣다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하는 말처럼

사심없이 공직을 수행하여야 국민의 혈세가

아깝지 않을텐데!

자그마치 비리를 저질렀다 하면

차마 벌어진 입이 다물어 지지 않을 정도로 저지르니!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한테 일러 바칠 수도 없고

타이르고 가르칠 나이도 아닌 사람들이 왜(?)

파국을 초래하는 일들을 저질러 온 국민을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거두절미(去頭截尾)하고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너무나도 시집을 와서 고생을 하였기에 말예요!

더운 여름에도 피서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러시아에서 시집을

머나면 타국으로 와 살면서 행여 시부모님으로 부터

버림을 받지나 않을까? 고민도 했지만

서러움을 주는 것은 시부모님 보다 남편이 나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더군요!

저의 마음은 오직 남편 하나 보고 살아 왔는데

처자식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커다란 꿈만 찾아 다니는 남편을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울음을 참으며 남편의 흥 아닌 흥을

퍼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였건만

하 무한 마음을 이렇게 하소연이라도 해 봅니다!

고인의 영정 앞에 삼가 명복을 비읍니다!

노심초사 늘 이 자식의 걱정만 하시던 저 어머니를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 불효한 자식을 용서 하옵소서!

로데오를 타고 난 후 정신이 몽롱한 사람처럼

모진 세상 풍파와 고통을 다 참아내신 어머니여!

보답의 효도를 하고 싶었지만

소식도 없이 떠나가신 어머니여!

오마니~! 소리쳐 불러도 대답이 없으신 어머니여!

조금만 더 살아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초조함이 이 자식의 눈시울을 적시고 또 적십니다!

코 흘리게 철부지 어린시절 무던히도 속을 썩이고

토라져서 울어도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으시고

포데기로 감싸 안아 주시던 그 어머니의 영정 앞에

호소하며 엎드려 비읍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랑없이 떨어지는 쓸쓸한 산비탈에

나무꾼이 지계를 내려 놓고 먼산을 바라보네!

다채롭게 물든 단풍을 보면서

라이타를 꺼내 담배를 한대 피운다!

마른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내뿜는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뿐인 인생인데

아까운 이 청춘이 이렇게 다 흘러 가는구나!

자식들은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가운 산바람이 두뺨을 스치고 지나가네!

카리스마(Charisma)적인 그의 권위는

타들어가는 담배처럼 재가 되어 사라지고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역경은

하얀 연기와 함께 허공을 맴돌다 날아가는구나!

고추장은 빨간 고추로 담그어야 제맛이 난대요!

노란콩으로 담근 된장이 또한 맛이 있다구요!

도라지는 산에서 자란것이 맛이 좋구요!

로미오는 줄리엣과 궁합이 맞듯이

모든 것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어져야 탈이 없습니다!

보람찬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소나무가 사계절 항상 푸른 것처럼

오로지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변함없이 살아 가십시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발끈 화를 낸다면

초라한 인간이 되고 말것입니다!

코 아래에 떨어지는 콧물을 받기 어렵듯이

토라지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포용력을 갖고 너그럽게 생각하십시오!

호들갑을 떨면 복이 들어오다가도 나간대요!

공작새 날개는 활짝 폈을 때 아름답듯이

농악도 흥이 들어가야 어깨춤이 나오지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통아(聾啞)나 장애인들도 부족함이 없어야 좋겠지요?

몽중(夢中)속을 헤매이고 있을 지라도

봉사(奉事)정신이 없으면 결코 도울 수가 없겠지요!

송송 땀히는 이마에 땀방울을 손등으로 닦으며

용잘거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종교를 떠나서 정말 칭찬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지휘자를 잘 만나야 일이 원활하게 풀리는 법이고

공나물 시루에도 물을 주는 사람의 행동에 따라 자라듯

통일을 이루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텐데!

풍당풍당 연못에 돌을 던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통일인간의 단군 할아버지께 통일을 이루게 해 달라고 빕니다!

구성진 노래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는 저 여인은

누구시길래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가?

루우즈(rouge : 이탈리아 어)를 곱게 바를 입술은

무척이나 아름답게 보이네!

부르는 곡절마다 간드러지게 넘어가고

수심가를 부를 때에는 가슴마저 찡한 느낌이 드네!

우리네 인생사가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지만

주무시다가 밤새 안녕(?) 하고 세상을 떠나는

추풍낙엽(秋風落葉)과 같은 것인데..!

쿠렁쿠렁해진 어머니의 뱃가죽을 보면 주름살

투성이 뿐이네.....!

푸념을 하며 왜(?) 이렇게 늙으셨느냐(?) 고,

후렴부분을 들을 때에는 눈물이 글썽거리는구나!

가꿈 가다 한번씩 들르는 카페에서

나를 유난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줄이야....!

다리를 꼬고 앉아 턱을 한손으로 고이고

라이프 액션(live action) 영화배우처럼

마른 안주를 입에 넣고 오물거리고 있네...!

바라보는 눈길마저 그렇게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앉아 있네....!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는

자그마한 체구에 저 사람은 누구시길 래...?

차림새로 보아 보통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카페 주인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가슴만 두근두근거리는구나..!

파초의 푸른 꿈을 피우기 위해 그 사람에게 직접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 보기로 했지요..!

갈매기는 바다위에 소리치며 떼를 지어

날고 있는데..!

달무리를 바라보니 집 생각이 절로 나네!

랄라리(날라리의 음운 법칙으로 씀) 같은 사람한테 사랑을 빼앗기고

말없이 집을 떠나 마도로스 신세라니....!

발버둥이 치며 술 한잔에 의지해 보지만

살길이 막연하구나!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했지 않는가?

잘살아보자고 그토록 맹세를 해 보건만 그 맹세도

찰대로 찬 그릇에 넘쳐 흐르네!

칼피스(calpis)향기같은 고향집을 그리며

탈진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우니

팔다리가 안 아픈 곳이 없고



말은 많아도 다 할 수가 없는 마도로스 생활!

걸음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널 보면서 오늘도 희망을 갖는다!

덜도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거라!

렐렐거리고 방아 타령을 부를 수 있게

멀고 먼 인생 길이 험하고 괴로워도 힘겹게

벌어서라도 너희들의 꿈은 꼭 이루게 해 주련다!

설것이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얼굴에 가득 찬 주름살이 늘어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련다.!

철부지 어린 것을 들쳐 업고서

컬컬한 목을 추기려고 막걸리 한 대접을 들이키고

털버덕 주저 앉아 먼 산을 보니

펼~ 펼~ 내리는 함박눈이 세월을 말해주네!

할레이션(halation)현상 같은 내마음을 그 누가 알아 주려나?

거울같이 맑은 호숫가에 살포시 앉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물속에 비친 그림을 바라보니.....

더러워졌던 나의 머리속에 맑고 투명한

러브 송(love song)을 감상하는 느낌이 드는구나!

머-얼리 보이는 저 산자락에 비스듬히 자란

버들강아지는 소리없이 짓고 있네!

서울 간 님 기다리는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젯밤 꿈에 보인 짝없는 기러기가

저리도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하게 울고 있네!

커다란 돈 보따리를 들고 금의환양 하기를

터의 발을 일구며 기다리고 기다렸건만.....

퍼렇게 멎어버린 이 가슴속에

하무함과 외로움만이 바람결에 스치고 지나가네!

거꾸로 가는 인생 열차를 타고

너무나도 멀리 온 것 같다..!

더운 지 추운 지 알 수 없는 곳.

려시아인 지 저승인 지 분간이 서지 않는 지금,

머무르고 있는 정차역의 주변을 둘러보니,

버려진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서로를 위로해 줄 아량은 오간데 없고

어쩌면 그리도 자기 자신만 아는 지...?

저산 너머 저 하늘 아래 다음 역엘 가면

쳐신 사나운 꼴을 안 보았으면 좋으련만

커 다란 꿈을 안고 다음 역을 향해 가고 있지만

터 놓고 이야기 할 상대가 없구나....!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보니

허전한 내마음도 함께 흘러 내리고 있네!

구국의 일념으로 한 말씀 올립니다.!

누구랄 것도 없이 전 국민께 올립니다!

두루 살펴 보시고 타당하다고 인정하시면

루우비(ruby)반지라도 하나 선물을 해 주실래요?

무한대의 기대를 하셔도 좋을만큼 큰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수입이 무한대로 가는 일이 있대요!?

우리 모두 이 일이 무엇인지 알아 볼 필요는 있거든요!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도

추가적인 소득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쿠팡우풍(coupon : 프랑스어) 판매하는 일이 아닙니다!

투자되는 것은 자투리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푸집한 수입으로 확대되는 미래에 꼭 올 수밖에 없는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일이 있다면 알아 보시겠습니까...?

가 능하다면 긍정적으로 생각 하십시오!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 주십시오!

다 가 올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라 라이프-스타일(life-style)을 바꿔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 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바 라고 원하는 절실한 꿈을 위해,

사 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

아 주 멋진 나의 미래를 위해 ,

자 세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차 후에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으며,

카 랑 카랑한 상사의 거슬리는 고함소리도

타 내지 못하고 이리 참고 저리 참으며

파 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 오는 퇴근길에

하루의 피로를 소주 한 잔에 의지하는 생활이 싫었습니다!

가을을 노래하고 단풍을 감상하는가 했더니

나홀로 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네!

다들 잠이 든 이 고요하고 조용한

라이브 카페(live-cafe)에는 쓸쓸한 불빛 만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구나!

바라보는 눈길마저 그윽한데, 마치

사랑을 굶주린 여우처럼 뒤척거리다가

아침이 밝아 오는 것도 모른채 꾸그리고 앉아 있네!

자문(諸問)을 구할 겨를도 없이 어느 새

차가운 겨울이 와 버렸네!

카나리아(canaria)의 그 고운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

타오르는 이 열정과 이 능력을

파묻혀 버리고 말고 개성을 살려서

개미처럼 죽기살기로 일만 했지요! 그러나,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가 없으면

대 성공을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래빗 안테나(rabbit-antenna)로 모든 방송을 수신할 수 없듯이

매사(每事)에 최선을 다하고, 우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컴퓨터를 통해 생기고 있으며

애들은 지금 컴퓨터를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재주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습니다!

채워야 할 욕구는 너무나도 많은데

캐리어(career)를 다 충족시키는 것은

태어나면서 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지 않고 나 자신이 꼭 성공을

해 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금이야 옥이야 너 하나만을 위해 살아왔단다.

눔금꽃이 피는 날에도 눈보라가 치는 날에도

듬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름연(늠연 : 凜然)한 네 모습을 보면서

름자(字)를 찾는 심정으로 없는 것도 얻어주려고

름자(字)도 없는데 찾아달라고 하는 너를 위해

슴벽거리는 눈을 비비며 열심히 찾아 보았단다.

음지(陰地)에서 자란 풀이 힘이 없듯이

즘승들도 잠시라도 한 눈을 팔게 되면

츄적(闖敵)하려는 무리들이 도사리고 있기에

금직한 돋보기를 이용하여 찾고 또 찾으며

틈틈이 너에게 부족한 국어 공부를 위해서

품자(字)로 시작되는 말을 열심히 찾으며

이름구덕이 나지 않게끔 너를 훌륭하게 키우련다!

거울속에 비친 아름답고 귀여운

너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애뽀기만 하구나!

더없이 맑고 청순한 그 몸매와 파란 눈동자는 마치

러시아 여성을 연상시키게 하는구나!

머리결은 비단결처럼 곱고 마치 바람결에 휘날리는

버드나무처럼 유연하구나!

서방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곱게 한 화장은

어느 누가 보아도 탐을 낼 정도로 곱구나!

저렇게도 너의 모습이 아름다운데 어찌 내가

처덕(妻德)이 없을손가.....???

커 다란 복이 언젠가는 호박덩이 굴러 들어오듯 대박을

터 뜨리며 꼭 올것 같구나!!

퍼 담은 이 복(福)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면

허 염심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하는 말처럼

내가 편하고 즐겁다고 과거의 어려움을 잊고 산다면

대단한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는

랙크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현상처럼

(랙크 : rack : 평판에 이가 붙은 것으로 작은 톱니바퀴를 맞물려서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데 쓰임)

매우 곤란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배움을 게을리 한다면 나이를 먹고 늙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없지요!

애써서 이룩해 놓은 소중한 모든 것들을

재미있는 생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채마밭에서 고구마를

캐낼 때처럼 조심스럽게 호미질을 해야 하고

태만하고 게으르게 일을 처리하면 항상

패가망신(敗家亡身)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해(害)가 되는 일들은 미리 미리 조심을 하는 것이 어떨까요?

국화꽃 향기가 그윽하게 풍기는 거실에는

녹신녹신하고 맛이 있어 보이는 떡이 한 접시 놓여 있고

똑딱거리며 다듬이 질을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하며, 벽에는

룩작이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걸려 있네..!

룩작(Rucksack : 도이칠란드어 : 물건을 넣어 등에 지는 등산용 배낭의 하나)

묵묵히 그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며 밖으로 나오니,

북쪽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숙부님과 종형제들의 모습이 아롱거리듯 떠오르네!

옥하는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죽었으면 부고라도 오련만 , 남북이 가로막혀 그 마저도 못오니..!

축수(祝壽)하기를 부디 부디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겠소....!

쿵쿵 치밀어 오르는 가래침을 되삼키다가

툭하면 울어버리고 싶은 이 내 심정을 그 누가 알리오!

푹들어간 눈을 치뜨고 북쪽을 바라보니, 갑자기

훑하고 찬바람만 수심에 찬 얼굴을 때리고 지나가는구나!

크토록 당신을 잊어보려고 애를 쓰고

느티나무에 기대어 서서 신장으로 저편을 바라보니

드문 드문 지나가는 자동차가 내마음을 알려나?

르망 승용차를 타고가는 사람 그랜저를 타고 가는 사람

므거운(고어) 짐을 싣고 가는 화물차를 끌고 가는 사람!

브로우치(brooch)를 예쁘게 가슴에 달고 걸어가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내마음을 알리가 없을 것이오!

으름장을 놓듯 내밀어 버린 그 사랑을 잊을

즈음 갑자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일까...?

츠기너기(고어 : 섭섭히 여기다)는 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구나!

크나 큰 기대가 실망으로 돌변할 때 느끼는 감정은 마치

ㅌ집을 잡고 시비를 거는 사람처럼

ㅍ로그램(program)에도 없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구나..!

ㅎ느끼며 애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생각 말아야지.....!

고부 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우선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자녀들에게

도리에 벗어나지 않는 말로서 칭찬과 격려를 마치

로마의 교황처럼 성스럽게 해준다면 , 이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실 것이다!

보물처럼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보살피면 , 아무리

소불동념(少不動念)인 시어머니라도 감동을 하여

'**오**직 내 며느리 밖에 없구나 ' 하는 자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며느리를 위해 신경을 쓰실 것입니다!

초지일관(初志一貫) 정성을 다하는데, 밥그릇에

코를 풀 시어머니는 없을 것으로 알며 , 혹시라도

토라져서 어느 한 쪽이 마음 상해 있을 때에는

포용력을 갖고 다른 한 쪽이 다가가서 끌어 안는다면

호천통곡(昊天痛哭)을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가장 유능한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의 경제 뿐만 아니라

라면도 제대로 못 풀이는 가난한 서민들의 고충까지도

마음속으로 헤아릴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어야 하겠다!

바보스럽게 국민이 죽임을 당해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촛불시위와 혈서를 쓰는 등 ,

아우성을 치게 만들어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차디 찬 거리에서 자식의 죽음에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는

카인의 후예같은 그 부모의 심정을 알고나 있는지....?

타오르는 국민의 감정을 촛불에 담아 올리니

파국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온 국민이 환영하며 쌍수(雙手)를

하늘 높이 들어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곤경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논개는 적장을 끌어 안고 강물에 뛰어 들었는데

돈때문에 은행에 충기를 들고 들어가는 정말

론(論)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본인 자신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손에 흉기를 들고 남의 것을 취하려 하는 것은

온세상에 규탄을 면하기 어렵지요..!

존경하는 모든 국민들께 부락을 드립니다!

춘스럽고 창피한 일일랑 그만 두시고

콘테이너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는 수재민을 위해

톤틴메더드(tontine method) 방법처럼 위기를 대비하여

폰미터(phone meter)장치와 같은 방법으로 일정액을 모아서

가운데로 그려진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무언의 약속인데

나잘났다고 함부로 핸들을 꺾는다면 몸을

다치거나 죽음을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 뉴스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너무 조금하고 나쁜 운전 습관 때문입니다!

바른 운전 습관을 길러야 하며, 또한 음주 운전을 하면

사고를 부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을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차에 핸들을 잡을 때에는 절대로 음주를 하지 마세요!

카바레(cabaret 프랑스 어)에서 만약 술을 드셨다면

타인에 도움을 청하든가, 아니면 차를 두고 가세요!

파국을 초래한 뒤에는 아무리 후회를 하고

하느님한테 용서를 빌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갑 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면 모두들

남 득하기 어렵다고

답 한 심정을 가지면서 그래도 소위(所謂) 가장이-

랍시고 그런 생각을 한번쯤은 하실겁니다!

몹소서! 그런 행운이 왜(?) 나에게는 아니 올까?

받 세끼를 굶지 않고 배불리 먹으면

살갸가 부럽지 않지, 그 이상 무엇을 바라느냐? 고,

압시(壓視)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지만

잡지나 방송을 통해 수 십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다는 것을 들을 때에는

잡잡한 마음을 금할길 없고, 마치

캡셀(kapsel)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굳어버리는 느낌이죠...

탑새기 주는 말을 그만 두시고

팝송(pop song)이라도 한국 부르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부부가

환주(歡酒)를 한잔 드신다면 그것이 곧 행복이 아닐까요?

고독에 빠져 술 한잔을 기울이며 마음속의

노래를 부른다!

도로 위에 튕구는 낙엽을 바라보며

로맨스(romance)에 취해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을 다 잊어 보련다!

보물처럼 애지 중지 하면서 자식을 길렀건만

소용이 없구나!

오늘도 그 옛날에 너의 어렸을 적 생각이

조금은 희미한 기억 속에 떠오른다!

초등학교 시절인가?

코흘리게 시절에 무엇인가 사 달래는 것을 못 사주었더니

토라져서 울면서 학교도 안갈려고 하던 너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달래주어도

호들갑을 떨며 고집을 부리던 너의 모습이 아련하구나!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너무나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더러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끗한 눈으로 덮었습니다!

러셀(russel)차가 바쁘게 눈을 치우고 있고

머리에 쓴 산타 할아버지의 모자는 더욱 아름답게 보이네!

버림 받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서럽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어둠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의 날이


저물어 가는 임오(壬午)년에 모두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처연(惻然)한 느낌은 모두 사라지고

커다란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터널(tunnel)속처럼 갑갑한 마음속에 걱정 근심을

퍼붓는 눈속에 다 묻어버리시고

전한 외로움도 새해에는 다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꼬부라진 못도 한 번 펴서 쓰면 쓸 수 있듯이

노인이 되었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헛 것도 한 번 손질을 해서 쓰면 쓸 수 있지요!

로스구이 통닭이 식었다고 버리지 말고 데워서 드세요!

모든 것을 아끼고 절약하면 나라가 부강해지지요!

보뽀뽀 친구들! 보리밥도 없어서 못 먹던 시절이 었그제였는데

쏘가리 매운탕에 소득이 좀 늘었다고 자원을 물 쓰듯 ping ping 쓴다면

오직 가난밖에 찾아올 것이 없지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삭을 줍듯 조그만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초라한 옷이라도 잘만 손질을 하면 깨끗하게 입을 수 있지요!

코트가 낡았다고 무조건 쓰레기 통에 버린다면

토지(土地)를 작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포도주의 참맛은 오랜동안 기다려야 되듯이

 의호식(好衣好食)하려면 국민 모두가 꼭 절약을 합시다!

견너 마을에 사는 면장님택 따님에게

년저시 데이트를 하자고 쪽지를

던지고 회답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였지요!

런닝-셔츠(running-shirts) 바람에 답답함을 억누르고

먼산을 바라보니, 아무래도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션술집에 들러 술 한잔에 푸념을 하며

언제 그 예쁘고 착한 그녀에게서 기쁨의

전같이 오려나?

천천히 무작정 기다리다가 다른 총각 한테

컨택(contact)을 당하게 되면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니!

턴(turn)을 해서라도 그녀의 마음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편뜻 들어서

한 걸차게 차려 입고 직접 만나기로 약속을 받아 내었지!

계으르기 이룰데 없는

네 모습이 새해부터는 좀 변했으면 좋겠구나!

데려다 기른 자식처럼 속 썩이지 말고

레몬 주스라도 한잔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매마른 현실에 한눈을 팔면, 눈 뜨고도 코를

베어가는 일을 당할 수도 있을 테니까...!

세상을 똑바로 보고 제발 좀

에미 애비 속 좀 썩이지 말아라!

제 아무리 타일러도 말을 듣지 않으면

채면이고 뭐고 없이 연(緣)을 끊을 수 밖에 없지?

케네디 대통령도 부모의 속을 썩이지 않고, 양심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을 하였기에 대통령이 되었듯이

페달(pedal)을 열심히 밟다보면 반드시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행복이 찾아 온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가정의 주부로서 지켜야 할 법도가 많이 있기에

나무랄데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처리하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가끔씩

라디오 방송이나 신문에 의하면 정말 온몸이

마비가 될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요!

바람이 나서 외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하였느냐? 에 따라

차지하는 행복의 비중이 좌우(左右))되는 것을 데일

카네기는 수 없이 강조하고 있지요!

타(他)에 모범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살아간다면

파혼을 당하거나 헤여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개가(改嫁)하여 팔자를 고쳐볼려고

내디딘 발길이 고작해야 이 모양이란 말인가?

대갓집 맘며느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

래도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렸으니

매운 시집살이를 할 수 밖에 별 수가 없지요!

배추김치를 한번 하여도 수 십통씩 절이고

새빨간 고춧가루도 몇 그릇씩 들어가는 것을

애당초 알지 못했음이라!

재잘거리는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채마발 옆에 쭈그리고 앉아 앞산을 바라보니 인생길을

캐물어도 어느 누가 해답을 주지 않는구나!

태산을 넘어야 평지를 보는 것을 깨달았음이 움푹

패인 주름살이 하나 둘씩 늘어 어느새 금년도 절반의

가는 세월과 늘어나는 주름살을 그 누가 막으리오!

나이는 먹기 싫어도 아니 먹을 수가 없구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의 수레바퀴를 못돌게 할 수 있다면

라벨(label : 상표)을 붙여 특허를 낼텐데 말ियो?

마음과 몸이 괴로울 때 죽었다가 행복할 때 살 수 있다면

바보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흉을 보겠지요!

아무리 궁리를 하여도 그렇게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자면서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겠지요.

차세대에는 인간도 복제를 한다고

카운트 다운(count-down)에 들어 갔는데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때

타의 반 자의 반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으리오!

파뿌리가 된 머리를 까맣게 염색은 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운명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깍두기와 김치도 정말 맛있게 담그고요!

낙지볶음과 매운탕도 내 입맛에

딱 맞게 요리를 잘하지요!

락토오제(Laktose : 독일어)를 먹는 것처럼 정신없이 맛있게

막 먹다 보면 배가 터질 것 같이 저고리가

뽀박뽀박할 정도로 배가 나오지요!

쌈쌈하기는 더 할 나위 없을 정도여서 제아무리

악한 사람도 감히 말 한마디 못 붙여요!

짜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착한 마음으로 항상 살아 가신다면 스위스에서

카테일을 맛보는 것 보다 더욱 더 좋은 일이

탁트인 주작대로 처럼 넓고 길게 이어질 것이오!

팍! 하고 뒤통수 때리는 소리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학 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지요!

간호사가 병원에서 환자를 대하다 보면

난처하고 황당한 경우가 종종 있지요!

단지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간호사

란 이유로 때로는 꺾꺾 눌러 참아야 하지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항상 긴장을 하고 행여

반감을 사는 환자가 있을 경우 비위도 맞춰 줘야 합니다!

산부인과의 경우는 산모가 출산중에 통증을 못참고

안절부절하면서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잔소리를 끓여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찬찬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대해주어도 이 심정을 모를 때에는

칸에 들어갈 정답이 생각나지 않아도

탄식을 하며 왜(?) 내가 이 직업을 택했을까(?) 하고

판을 깰 정도로 후회를



적은 없으며 오직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싶을 뿐입니다!

고두레돌 넘기는 소리에 맞추어서

노인은 시조를 한곡 읊조리는구나!

도련님은 바지 저고리를 곱게 입고

로(爐)옆에 앉아 고구마를 굽고 있고

모친은 침침한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네!

보고 싶어도 이제는 볼 수 없는

소박한 시골의 옛 풍경이로구나!

오직 옛날 노인들에게서나 들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조금 더 세월이 흐른다면 이런 이야기조차 해줄 사람도 없네.

초가지봉에 박당굴과 박꽃도 구경하기 힘들고

코를 닦는 수건을 가슴에 달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없고

토끼가 방아를 찧는다는 옛날 이야기 속에

포함되고 마는 인생의 무상함은 어쩔 수 없구나!

랑이가 담배를 피운다는 시절이 었그제 같았는데 말이구나!

굴레방 다리 밑에서 6. 25. 피난 시절에

눌러 살던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둘러 보아도 사방에는 폭격에 허물어진 집들만 있고, 삶의

룰(rule)이 정해져 있지 않던 암담한 그 시절에

물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지요!

불을 짚혀서 밥을 해 먹기는 더욱 힘들었고

술구경은 아예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지요!

울고 있는 아이에게

줄밥조차 없었던 그 시절을 아시나요?

출출할때 냉장고를 열어보면 먹을 것이 잔뜩 있고

쿨쿨 잠을 자고 싶을때 실컷 잠을 자도 되는 요즘 사람들은

툴(tool)을 통해서나 간접적으로 알 뿐이지요!

푸처럼 생긴 옥수수 강냉이 죽을

이제 술 마시던 그 시절에 비하면 요즈음은 너무 배 부르지요!



[http://ko.wikipedia.org/wiki/%EA%B7%B8%EB%A6%BC:Araneus_diadematus_\(Gartenkreuzspinne_mit_Wespe\).jp](http://ko.wikipedia.org/wiki/%EA%B7%B8%EB%A6%BC:Araneus_diadematus_(Gartenkreuzspinne_mit_Wespe).jp)

거미가 집을 짓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나도 정교하고 틀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러는 틀릴 수도 있으련만.... 여러분들의

러브-스토리(love-story)도 거미집처럼 정확하게 쓴다면

머지 않아 사랑의 하머니(harmony)를 연출하게 될 것입니다!

버림을 받고 외로워 하며

서럽게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여딘가 모르게 두 사람의 부족한 점이 있지요!

저녁 노을이 드리워 질 무렵

처마 끝에 매달려 자신의 사랑을 위해 가느다란 줄로

커다란 집을 짓는 거미를 보면서 두 사람이 진심으로

터놓고 숨김없이 그리고, 거짓없이 사랑의 씨앗을

퍼담는다면, 그 집안에는 언제까지나

허물어지지 않는 튼튼한 사랑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너의

니마(고어: 이마)위에 머리를 보니,

디자인(design)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긴

리본(ribbon)을 꽃고 있는 모습과 입가에 머금은

미소는 마치 두 사람의 행복을 노래하듯 오물거리고 있네!

비록 부유한 집안도 아닌 나에게

시집을 와 살면서

이렇다 할 투정 한번 하지 않고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네가 고맙구나!

차마 보다는 바지를 즐겨 입고

키가 작은 체구에 동그란 얼굴에는

없이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너무도 예쁘구나!

피부결은 마치 사과를 보는 것 같고

히/ 죽이 웃고 있는 모습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구나!



http://blog.daum.net/jywe2000/2408844?nil_profile=tot&srchid=IIMSN3SH00

고요한 시골의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는

노을(놀)이 붉게 물들어 있고, 마치

도화지에 물감을 뿌려 놓은 듯 하구나!

로진스키(술의 일종)의 맛은 마셔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듯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하늘의 조화(造化)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느낌을 모르리라!

소리없이 흘러가는 구름 사이 사이를

오묘(奧妙)하게 뚫고 지나가는 빛의 마술을 바라보며, 천지(天地)의

조화를 감탄하지 않을 수 없구나!

초롱 초롱한 너의 눈망울을 바라보며 나의

코흘리게 시절이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50 줄에 들어

토해낼 수 없는 나이를 먹고 보니

포장할 수 없는 이마의 주름살을 저 하늘의 오묘함으로

호환(好換)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로구나!

가 물어 메마른 대지 위에 비가 내리네!



http://cafe152.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s45l&mgrpid=null&fldid=5jv6&contentval=0005B////////////////////////////////////&datanum=321&fenc=WMV3dtP7z9g0&nenc=DAVaShZGKqOvLxZG4Dtsw00&srchid=IIMXkkUg00

나의 외로운 이 가슴도 축축히 젖어 드는구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의 드라마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사처럼

마음속 깊이 저며오네!

바람도 세차게 부는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즐거운 날도 많았는데!

아픈 가슴에 상처를 치료해줄 수 있는

자상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만날 생각으로

차디 찬 비바람을 맞으며 기다렸더니....

카나리아와 같은 여성을 만나 행복하게 살아 가면서

타오르는 열정을 불태웠지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되돌아 보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네!

거칠어진 손등과 주름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너의 모습과 나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방황하지 않으면서

러브(love) 러브(love)를 외치며 살고 싶구나!

머무를 시간보다 덧없이 살면서 써서 없어져

버린 시간들이 더욱 많은 것 같아 안타깝고

서럽기만 하구나!

어찌다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을까...?

저물어 서산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처녀 총각 시절에는 엄청나게

커다란 꿈과 희망과 미래의 포부를 가슴이

터질 만큼 크게 가졌었는데 이제는

퍼질대로 퍼져버린 엉덩이 살과 두꺼워진

하리살을 만지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구나!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가 유난히도 아름답구나!

낭떠러지 절벽에 매달린 저 소나무는 애절하게



<http://blog.daum.net/yrkim679/13387033?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yrkim679%2F13387033>

당신을 부르며 손짓을 하는 것 같구나!

랑자의 외로운 가슴에 파고드는 사랑은

망망대해로 흘러가는 저 강물처럼 아무런 말이 없네!

방울 방울 볼을 타고 흘러 떨어지는 그 눈물은

상처뿐인 랑자의 슬픔을 말해주네!

양상한 나뭇가지는 외로움에 못이겨 부르르 떨고 있고

장미빛 입술에는 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네.

창공에 떠 있는 달과 물속에 비친 달을 번갈아 보며

강강 찾아대는 강아지에게 낮에 먹다 남은

탕수육을 주며 "시끄러우니 이것이나 먹고 조용히 해라. 네가 찾으면

팡세의 타 들어가는 듯한 그 음울처럼 저 오묘한 달빛을 감상할 수 없으니.....

항포구에서 혹시라도 내님을 만나거든 그때 실컷 찾아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나

동네에 남아서 이집 저집을 다니며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나

롱아(龍兒)처럼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가

몽롱하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걱정하며 살기는 마찬가지라오!

봉새(소경)라고 행여 걱정이 없을 것 같아도, 짖을 따먹으려면

송진을 묻히지 않고는 딸 수 없듯이 인간이 서로

웅기 종기 모여살다 보면 걱정거리는 늘 있게 마련이지요!

중가집 맘며느리를 비롯하여

총을 메고 군대에서 국토를 수호하는 군인에게도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드는 사람에게도

통발 그물로 고기를 잡는 사람에게도



<http://krdic.daum.net/dickr/contents.do?offset=A039854800&query1=A039854800#A039854800>

풍 풍 세제로 설것이를 하는 주방 아주머니에게도

풍의 사상의 단군의 뜻이 늘 함께 하여 모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정을 몇일 앞두고 있는 요즈음, 시집을 간

누이가 문득 생각이 나는구나!

두레박 우물에서 물지게를 지던 그 누이는



작 가 : 김홍도 제 작 연 대 : 18세기 후반 소 장 처 : 국립중앙박물관 재 료 · 크 기 : 종이에 엮은 채색, 27.0×22.7cm 이 그림은 지나가는 한량이 우물가에서 물을 얻어먹는 장면이다. 그런데 가슴을 풀어 헤치고 갓을 벗은 한량이 두레박을 올리는 여인을 바라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다. 김홍도의 에로티시즘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coi-100.BA101.S20.R100-cp0203013856](#)

<이 개발한 표준화 식별체계.

콘텐츠에 대한 [정보공유](#), [검색](#), [유통과정](#) 및 [이용현황](#) 파악에 활용 됩니다." height=18 src="http://imgsrc.search.daum-img.net/dic/2008/btn_coi.gif" width=76 align=absMiddle>

http://culturaldic.daum.net/dictionary_content.asp?Dictionary_Id=10018034&mode=title&query=%B5%CE%B7%B9%B9%DA

루비 반지를 사 달라고 신랑에게

무진장 졸라대던 그 모습이 떠오르네!

부산에 어느 바닷가 근처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수선화를 유난히도 좋아하던 그 누이....!

우리집에서 가장 예쁘게 생긴 그 누이..!

주름치마를 즐겨 입었던 그 누이가

추운 겨울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고 있는지....?

쿠우냥처럼 예쁘게 생긴 딸을 낳았는지....?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을 달래며 멀리 시집 간 것을

푸념을 하며

후회는 하지 말고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한다는 속담처럼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래후년(來後年)에 돌아올 불행을 미리 준비한다면

매사에 어려움이 없을 것ियो...!

배부를 때에 배고픈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애써서 알뜰하게 저축을 해둔다면

재정적으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채무자 신세는 면할 것ियो...!

캐비넷 금고 속에 돈을 가득 채워 놓고

태여나는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살아가면서

패망(敗亡)과 성공을 번갈아 맛보게 되는 것은

해가 저물어도 날마다 청춘일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많이 일어나고 친환경 제품이 아닌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하천의 물이

더러워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지요!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http://ko.wikipedia.org/wiki/%EA%B7%B8%EB%A6%BC:View_of_Chernobyl_taken_from_Pripyat.JPG

머지않아 지구는 극심한 오염으로 뒤덮일 것이오!

버려진 쓰레기와 폐기물로 뒤덮인 지구를

서둘러서 보호하지 않으면 인간이

어떤 재앙을 만날지 모르는 일이지요!

저토록 늘어나는 쓰레기를 국가에서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게

커서 나중에는 국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마저 침식 당할 우려가 있지요!

퍼지는 쓰레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허드레 물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적문은 여름에는 좋으나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을씨년스럽지요!

더운지방 같으면 좋겠지만 추운 겨울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머리에 털모자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지요!

서민들의 추운 겨울은 참고 살기

어려운 계절이네요!

저리도록 손과 발이 얼고 더운 물도 없이

처절하게 생활하는 서민들의 딱한 사정을

커다란 대문에 정원이 넓은

터에서 더운물을 아낌없이 펴

퍼쓰는 부유한 사람들이 알 까닭이 없지요!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여도 못사는 사람이 많아요!

가슴속을 파고드는, 애간장을 다 녹이는

나의 애절한 추억속에 그 사랑아...!

다시 한번 그 때 들었던 그 음악,

라-팔라마의 경음악을 듣고 싶구나!

마치 전율을 올리는 것 같은 그 음율의 오묘함은

바로 너를 손짓하며 부르는 것 같구나!

사랑하면서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은

아쉬움만 더하는데

자꾸만 나의 머리속에서 맴돌다 가는 그 사랑아..!

차라리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의

카리스마(Charisma)적인 이 불타는 사랑을 외면하지 않았으리...!

타다 남은 숯덩이 처럼

파장이 되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피울 수는 없을까?

하루가 천추(千秋)같이 기다리는 그 사랑아...!

강년기에 접어든 여인이 부엌에서

냉이국을 끓이고 있는데 곱게 빳은 머리에

당기를 들인 이웃집 소녀가 다가와서 말을 붙인다.

"**랭**킹(ranking) 1 위의 미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지요?"

맹추같이 이 세상에 미인이 다 죽었나 (?) 보대!

뱅글 뱅글 돌아가는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있는

생기가 넘치는 그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앵두같이 빨간 입술에 그런대로 예쁘다는 소리를 들던 내가

쟁기로 밭을 가는 시골 농촌의 남편을 만나 얼굴조차

챙기지 못하고 나무를 때서 부엌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갱! 갱! 재채기를 해가며 밥을 짓던 생각이 떠오른다!

탱자나무가 있는 개울가 얼음판에서

팽이를 돌리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내 모습이 떠오르네!

감정이 앞서가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내 다른사람과

담을 쌓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람정(濫情)은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

맘속에 있는 정을 모두 꺼내지 말고

밤마다 조금씩 꺼내어서

삼삼하고 아름답게 베풀어야 합니다!

암만 정을 다 쏟아 사랑한다고 말해도

잠자리가 불편하면 두 사람 모두가

참고 살아가기가 힘들지요!

캠 캄한 밤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탐 험대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서 우물을

팜 (동명사적 표현)으로서 다음 단계가 수월하게 진행되지요!

함 정은 어디에든 도사리고 있으니 매사에 조심하시오!

가슴속에서 이글거리며 타올랐던

나의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아...!

다짐을 하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라이타 불을 붙혀 담배 한 모금 마시며

마음속으로 애써 잊으려고 몸부림을 쳤건만,

바늘로 온몸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으로

사지(四肢)가 부들부들 떨리고 좀처럼 내결에서

아직도 떠나지 않는 그 애끓는 사랑아...!

자다가도 꿈속에서 떠오르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생각나는 그 사랑아...!

카네이션 꽃잎처럼 붉게

타오르던 그 입술, 그 향기가 나의 코끝을 짙~하게

파고드는 그 사랑의 여운(餘韻)이

하도 애처로워 이 밤도 잠을 못이루게 하는 그 사랑아..!

가진 것 없다만은 정 하나로 살아온

나와 너는 행복했었지!

다 떨어진 구두를 신고, T V도 없고

라디오 소리에 흥얼대며 살면서도

마음만은 변치 말자고 맹서를 했었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며

사랑을 속삭이던 그 추억 그 시절이

아쉬움만 더하는구나!

자취도 없이 떠나가버린 그 추억속에 여인아..!

차라리 이것이 꿈이었으면 어떨까?

카멜레온 같은 그 속절없는 사랑아...!

타오르는 불꽃처럼 피어나서 또다시 내 가슴을

파고들어 놓지 말고 정다웠던 그 사랑을 불태워다오!

하늘가 저 산 넘어에 노을만 붉게 타는구나..!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은

난처한 경우를 당하는 예가 종종 발생하지요!

단정한 자세와 정직한 행동을 하면

란감한 경우를 당하는 일은 없을 것어요!

만년을 사는 인생도 아닌데, 그렇게 야비하게

반도덕적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살아가는 인생인데

안일하게 행동하며 살다가는 이마에

잔주름만 늘어나고 말 것어요!

찬사(讚辭)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 마음의

칸막이를 과감하게 헐어버리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탄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십시오!

판단을 하기 전에 항상 웃어른과 스승님께 여쭙어보신다면

한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어요!

구수한 냄새가 나도록 밥을 약간 태워서

누룽지를 만든 다음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튀겨서 설탕과 소금을 알맞게 넣어서

루이보스티 닮인 물을 약간 넣고 조금 있다가 먹으면

무척 맛이 좋은 간식거리가 되지요!

부서지는 소리가 입안에서 아삭아삭하며

수없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우리집의 아주 유일한 간식거리지요!

주로 겨울철에 아이들에게 만들어 주면 더욱 좋아해서

추운 날은 아예 나가서 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쿠키(COOKI :과자의 일종)도 이 보다는 맛이 없다면 그것만 해달라고

투정을 부릴 정도랍니다. 옛날에 호박

푸랭이 죽도 없어서 못먹던 시절을 떠올리며 남편은

후라이팬에서 맛있게 튀겨지는 누룽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네요!

거리를 걷다가 보면 이제는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더욱 많은 것 같고 또한 중국의 조선족을 비롯해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지요!

머리는 금발의 팔등신 미녀가 있는가 하면

버릇없이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서운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정말

여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저녁 늦은 시간에는 거리로 몰려나와

처소(處所)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커다란 목청으로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

터가 빈곳에 실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퍼져가는 외국인들의 불법행위를 보면서 왠지

허무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희(古稀)를 맞이한다는 것은 옛날부터

노인들의 장수(長壽)가 드물었기에 붙여진 70세를 말하는데

도대체 요즈음은 너무 흔한게 70세 이상 되는

로인(老人)들이대!

모두가 그만큼 삶의 환경이 좋아져서 노인들의

보호정책 덕분에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소외되어 외롭게 홀로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이

오늘도 거리를 방황하며 쓸쓸한 모습으로

조석(朝夕)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 !

초라하고 불쌍한 그들에게 따끈한

코아라도 한잔 대접해 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토요일 오후 시간을 내어 그 노인들을 찾아가서

포근하게 대해 주었더니, 그 노인들은 뜻밖에

호의에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는 말을 수 없이 하였다!

重傳이희빈 블로그 가나다라행시

블로그

重傳/이희빈 블로그

<http://blog.daum.net/hblee9362>

저자

重傳 이희빈

발행일

2011.02.08 19:24:13

 블로그